

여론브리핑 제49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글로벌 리더십, 아시아 리더십 평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은 세계 주요현안과 인권 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2009년 조사는 전세계 인구의 62%를 포괄하는 20개국 나라 19,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http://www.eai.or.kr>)과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 담당했다. 주요 연구주제 및 조사 국가는 다음과 같다.

▣ 2009 세계여론조사 주제

(1) 세계리더/ 아시아리더십 평가(6.29 GMT 21:00)

- 반기문/오바마/후진타오/사르코지/푸틴/메르켈/아디네자드 대통령 평가
- 아시아인이 평가한 아시아 강국 리더 : 김정일/이명박/아소/싱/자르다리

(2) 미중 국제적 리더십 경쟁

- (3) 세계경제위기 진단과 국제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4) 민주주의와 국회의 대표성 평가
- (5) 각국의 다수여론에 의한 소수여론 표현의 자유 억압 정도 평가
- (6) 지구온난화 인식과 각 국 정부 대책 평가
- (7) 종교 비판의 자유/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조사국가

미주	미국 멕시코
유럽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중동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아시아	대만*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한국 홍콩*

* 외교적으로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WPO는 전체 평균 산정 시 독자적인 국가여론으로 산정하지 않음. 아시아 국가 지도자 평가 시에는 독자적으로 계산함.

■ 한국조사 개요

조사일시	6월 5일
모 집 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6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4.1%
응 답 율	12.9%
조사방법	전화조사(CATI)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WPO 국제현안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선임연구원)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은 미국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대표: Steven Kull 교수)가 주관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연구조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여론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매년 1~2회 20여국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결과를 주요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원장: 이숙중)이 연구협력기관으로 매일경제가 한국측 보도기관으로 참여한다.

□ 내용문의

EAI 이곤수 거버넌스 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4/011-807-6023/ksyi@eai.or.kr)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각국 지도자, 국제적 리더십 평판 관리에 힘써야

대표집필: 이곤수 · 정한울

최근 과거의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강제력’ 으로서의 국력개념 대신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순응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 국 지도자의 ‘국제적 신뢰와 평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한나라의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자산이 된다.

예고된 이라크 파병미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이라크에 새로운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주둔미군의 수를 늘리기로 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국제적인 불안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반미여론의 강도는 부시정부에 비교할 때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만 보더라도 과거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FTA 논의나 파병논의가 전개될 때 마다 한국사회가 친미 vs 반미로 나뉘어 극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과거와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한국 사회에서 반미여론의 강도는 과거와 같지 않다. 이러한 변화 요인 중에 오바마 소프트파워가 작용했다는 추론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세계 주요강국이 소프트파워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다.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평판 관리에 힘써야 할 때다.

1. 세계 소프트파워, 세계 리더십 평가

정한울

오바마 소프트파워, 세계 리더십 급속히 회복

국제적 리더십 평판에서 후진타오 주석 리더십 오바마 리더십에 크게 못 미쳐

- 아시아에서 평가받는 후진타오 리더십, 서구나라에서는 안 통해

반기문 신뢰 받는 세계지도자 2위

세계는 경제위기와 테러리즘,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각종 인플루엔자 등 세계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위험의 개념을 뛰어넘는 비전통적인 안보위험요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대국과 그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 유일의 헤게모니 국가로 인정받던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그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중국은 소위 ‘G-2’로 칭할 만큼 미국에 필적할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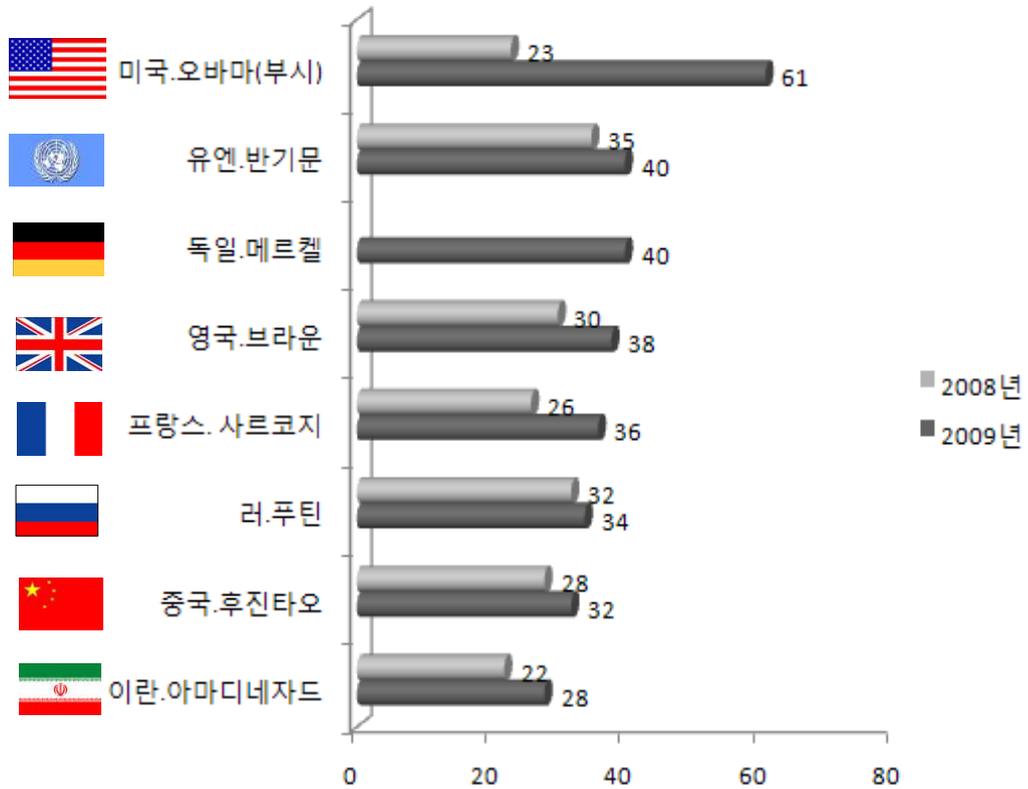
실제로 2008년 19개국 세계여론조사에서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무른 바 있다. ‘다음 각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였다. 미국 소프트파워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더구나 2008년 조사에서는 세계 어떤 지도자도 세계인으로부터 4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불과 35%의 신뢰도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뉴스위크지는 이 결과들이 ‘세계 리더십의 공백’을 의미한다며 국제질서의 불안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2009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워경쟁을 이끌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유엔,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20개국의 여론을 물어보았다.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주관하고 한국에서 동아시아연구원과 매일경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세계 20개국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국 19,244명 중 무려 61%가 세계지도자로서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다자협력과 존중의 가치로 상징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약 세계 리더십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어떤 지도자도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작년 조사에서 3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했던 유엔 반기문 총장이 올해에는 40% 지지를 받아 독일의 메르켈 수상과 2위 자리를 함께 했다. 영국 브라운 총리(38%),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36%), 러시아 푸틴 수상(34%)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G2로 불리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평판으로는 기대 이하였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국제적 리더십에 전체 응답국가 평균 32%만이 신뢰감을 표현했다. 이는 핵 개발이나 강한 반미입장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이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28%)보다 조금 높을 뿐 다른 서구 지도자들에 못 미치는 결과다. 특히 서구 국가 국민들이 냉담했다. 미국 국민은 25%, 독일 15%, 프랑스 14%의 국민들만이 신뢰할 만하다고 답했다. 다만 파키스탄(80%), 대만(60%), 한국(51%), 인도(50%)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다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리더십이 아직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이끌기에는 갈 길이 멀다.

[그림1] 20개국 여론 세계 지도자 신뢰도 평가 : “매우 신뢰” + “약간 신뢰” 응답비율(%)



- 주1. 자국 지도자 평가 시 해당 국가 여론은 계산에서 배제
- 주2. “매우 신뢰”, “약간 신뢰”, “그다지 신뢰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 “매우”와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을 합한 값.
- 주3. 미국의 경우 2008년 부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결과임

2. 아시아에서의 리더십 경쟁

이근수

후진타오 리더십, 아시아에서는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아시아인의 평가 중국, 일본 다음

- 후진타오(46%) > 아소 타로(37%) > 이명박(34%) > 싱(32%) > 김정일(24%) 순

한국인 후진타오 가장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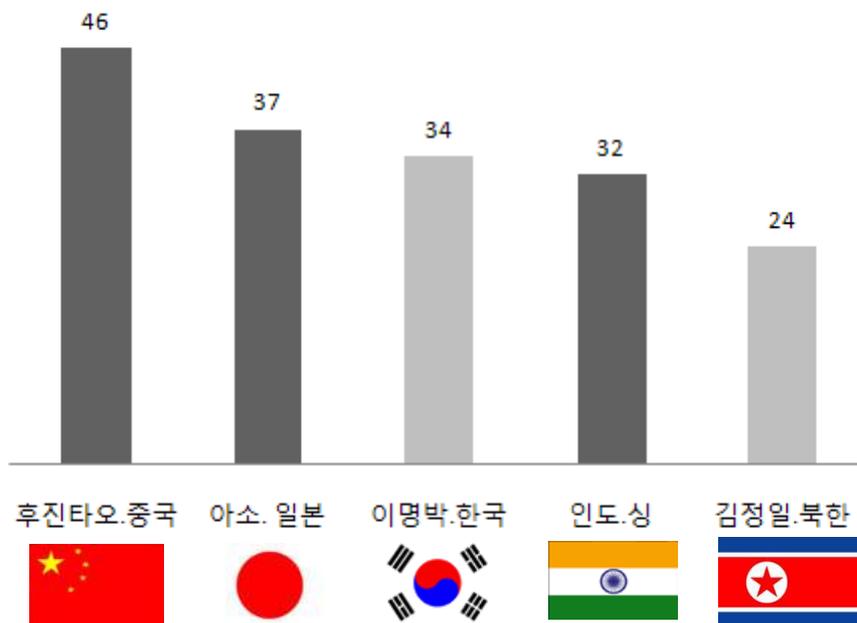
아시아지역 5개국(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후진타오 주석, 일본 아소타로 총리, 한국 이명박 대통령, 인도 마모한 싱 수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5명의 아시아지역 주요 지도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중

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44%의 신뢰율을 얻어 가장 신뢰받는 아시아 지도자로 평가되었다. 다음은 일본 아소타로 총리 37%, 이명박 대통령 34%, 인도의 마모한 싱 총리 32%의 순이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8%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타오는 인도네시아(24%)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모두 50% 이상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인도 50%, 한국 51%, 대만 60%).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아시아 지역 국민들의 신뢰율은 대만(41%)에서 가장 높았고 중국(38%), 인도(37%)에서는 평균이상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이 38%로 같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정일(22%) 국방위원장에 대한 신뢰도(22%)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과거 비동맹국가 시기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가장 높은 신뢰도(51%)을 보였다. 다음으로 마모한 싱 인도총리(47%), 이명박 대통령(40%), 아소 타로 일본총리(30%)의 순이었고,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 대한 신뢰도는 6%에 불과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조사결과(12%)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최근의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한국인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나 인도 싱 총리가 자국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40%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그림2] 아시아 주요 국가지도자에 대한 아시아 5개국 신뢰도(%)



[표2] 아시아 국가 지도자에 대한 아시아 5개국 국민 평가 : 신뢰 한다 (%)

	후진타오	아소	이명박	김정일	싱
중국	(94)	27	38	38	30
대만	60	48	41	16	27
인도	50	50	37	36	(83)
인도네시아	24	31	19	22	22
한국	51	30	(40)	6	47

주1.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5개국 국민의 조사결과. 자기 나라 지도자 평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의 여론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주2. 괄호 안의 수치는 자국 국민 여론으로서 평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EAI(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WPO 국제여론조사 한국조사 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6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1\%$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2.9%
조사기간	● 2009년 6월 5일
조사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